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아주 자비한 넓은 마음으로 화목하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인간에게도 이 허공에 오고 가는 그 길에도 그 저 모습 없는 모습 생명들이 꼭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세계의 그 많은 생명들, 모습,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항력을 가지고서 밀건 밀고 당길 건 당기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리하고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공부겠죠. 자력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땅에 붙고요. 붙어서 걸어도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재료는 어제도 얘기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는 적게 쓰든지 많이 쓰든지 그게 재료라고요. 그 네 가지를 풀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력의 재료를 그냥 모두 수요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서없이 맡은 했지만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두서없이 체계 없이 체계를 세우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상이며 바로 살림살이입니다. 금방 가만히 앉았다가도 금방 얘기를 듣고선 뛰어나가야 하는 이런 체계 없는 살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체계가 정연하게 서 있는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불잡아 가는 걸 봐도, 도둑이 말입니다. 지키는 사람, 물건 가지고 신고 가는 사람, 훔치는 사람 이게 다 도둑놈으로 몰려 가거든 전부 불잡혀 가져군요. 그러니까 계 준 사람이나 계 받은 사람이나, 허허허, 그 뜻을 바로 설하는 법설, 그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장평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론적으로 방편으로만



그림 · 최주현

니다. '달마 대사는 왜 딱에 수염이 없느냐?' 뭐 별것 다 붙인 거죠. 그 멋쟁이한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멋쟁이로 삽시다.

우리가 그런 당당하고 참, 땃땃하게 인간으로서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자기 양심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죽인대도 두려울 게 없고 살린대도 뭐 좋을 것이 없고 항상 중심을 가지고, 평등을 가지고 항상 두루 하면서 굴러면서 자기라는 걸 수속 빼 버리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부 나 아님이 없고 돌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냐, 옛것에게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한 몸으로 살면서 이름이 얼마도 되고 또는 머느리도 되고 팔도 되고 또는 아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많아서, 이름이 많아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많았을 뿐이지,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았을 뿐이지, 그 이름에다가 믿음을 갖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 요기 놓고 저기 놓고 요기 놓고 저기 놓고 그런데다가 그 이름에다가 놓고 빌고들 여러분은 기복으로 믿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의 이름이 얼마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아내의 이름이 있고 딸의 이름이 있고 머느리의 이름이 있고 형제의 이름이 있고, 아주 주욱 이렇게 있으면 따로따로 믿어라 그럴 겁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쳐서, 그 뜻을

가르치느라고 문수를 해 놓고 보현을 해 왔는데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현은 보현대로 문수는 문수대로 관세음은 관세음대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아미타는 아미타대로 미륵은 미륵대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이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수십 년을 가도 아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간 데 없이, 죽고 살고도 없이 언제든 이 몸을 벗더라도, 안 벗더라도 그냥 끝간 데 없이 그냥 여러분과 같이 지내렵니다.' 하는 것도 바로 내가 그냥 그대로 가는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이 그런 길이었지 뭐 다른 겁니까? 가다 가다 여러분 만나면 돌이 아닌 까닭에 같이 웃게 되면 같이 웃고 울게 되면 같이 울고 아프면 같이 아프고 이렇게 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실되게 한마디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말 하더라도 진실되게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도 이론으로만 알 양으로 빼듯하게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진실되게 행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있을기를 바라지, 내가 그대야만이 기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이름에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기복으로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의 마음도 당당하게, 땃땃하게, 무겁게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믿으면서 진실되게 나가신다면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그렇게 그냥 삼삼하고 얄삼하고 이론이고 그렇게 빌고 그러는 게 불교

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라는 그 인간을 받고 이 세상에 나와서 49년을 설했고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한 명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놓고도 항상 설하셨단 말입니다. 잘 때도 설하고 앉아서도 설하고 서서도 설하고 갈 때도 설하고 뜯 놀 때도 설하고 먹음 때도 설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분일초도 틈을 안 주고 설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입선이요, 와선이요, 묵선이요, 또는 좌선이요, 행선이요, 이런 것이 그대로 한데 합쳐서 참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이름을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노예가 되지 마시고 참 여러분의 그 주장자를 세우고, 주장자가 없다면, 예전에 일제 스님께서 "너희들이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너희들의 주장자를 뺏을 것이로되, 너희들이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만약에 너희 집이 주장자가 비었다면, 주인이 없다면 거미나 모든 벌레들이 전부 그냥 거미줄이 슬고 모두 꿈판이가 되고, 그 속이 빈집이기 때문에 그냥 털구벌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만 중생들이 드나들어도, 코를 통해서 드나들고 구녕 뿜던 데마다 드나들어서 그렇게 집을 망가뜨려도 너희들은 어느 뭐가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집이 비었으니까 썩어 들어가도 모르고 쓰러

져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병고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이제 끝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을 한 분 한 분 받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오늘 들은 것, 여러분이 책 보시고 카세트 들으시고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회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오늘 스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그쪽에 있으니까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큰스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여러분한테 내려주실 겁니다.

▲질문자: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좋은 법문을 주시고 또 항상 멀리 계시지만 제가 저를 찾는 데 좋은 안내자가 항상 되어 주시니 뭐라고 감사할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스님께서서는 신통력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앓은뱅이를 고쳐 주시고 돈을 좀 벌게 해 주시고, (대중 웃음) 그리고 인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신통력이 자기 주인공을 찾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면으로 볼 때는 그 신통력을 사용하시는 스님 자신이 어떤 기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여러분한테 나는 신통력이 있다고 하지도 않았고 (대중 웃음) 또 신통력을 부린 예도

“
항상 중심을 가지고
항상 두루 하면서
자기라는 걸 수속!
빼버리고 사세요
”

하는 이 오게 설법은 그건 한데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복하면, 그래서 양 무제더러 달마 대사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는 그냥 약사발을 받았습니까, 네? 세상에 그걸 거짓말로, 그렇게 나를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알고 있을 텐데도 거짓말을 못해서 그대로 말을 해 가지곤 약사발을 받은 것 아닙니까? 달마 대사는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 약사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온 곳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이것이지. 죽, 살았다는 언어가 붙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달마 대사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약사발을 안겨서 죽어서 갔다. 물은 자리에 신발 한 짝을 남겨 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자에 신발 한 짝을 떼서 어깨에 짊어진 채 바로 사신한테 보였습니다. 양 무제가 심부름시킨 사신한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던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산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항상 밝고 항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서 보이느라고 말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이게 공덕이지 너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너희가 욕심내고 그렇게 너희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공덕이 못된다고 죽어서도 가르치신 것이죠. 얼마나 멋쟁이십니까! 그래서 그 멋쟁이를 비유해서 낚시밭으로 공부하는 학인들한테 던졌던 거죠.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까닭이 무엇이나?' 하고 말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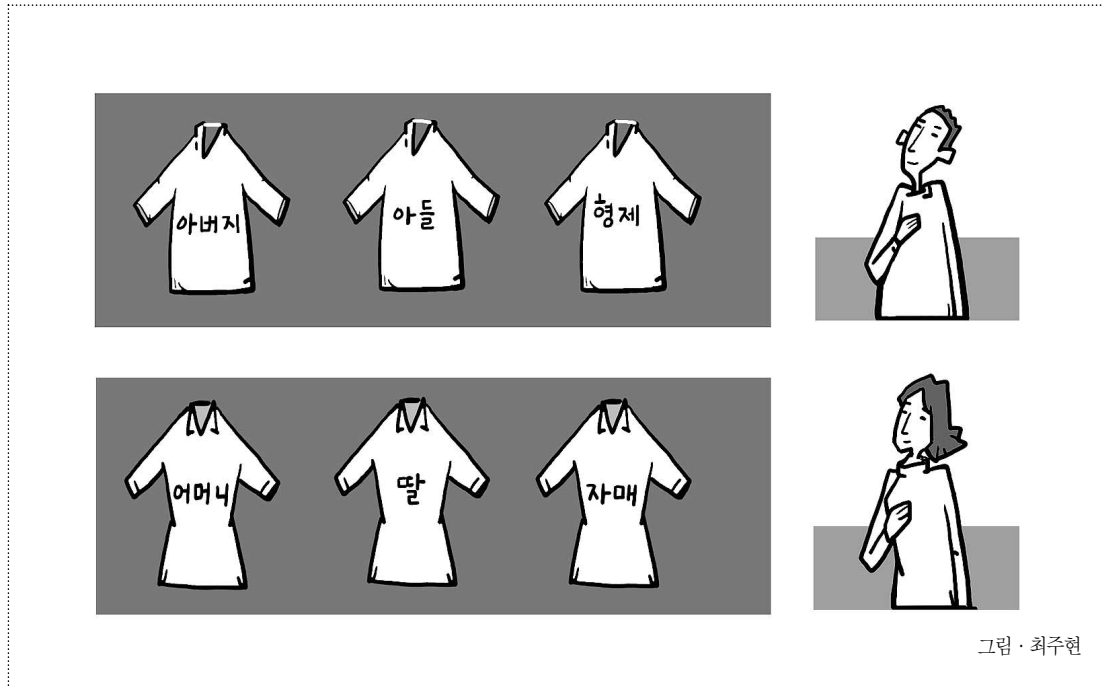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여러분의 마음을
당당하고 땃땃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디디면서 나가야!
”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길잡이로서 때에 따라서 급하면 여러분의 주인공을 그렇게 믿고 관찰 때, 날더러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와서 내가 가르쳐 줄 때에, 길잡이로서 얘기를 해 줬을 때 나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잡이로서의 그 마음을 주인공을 한 참나에 믿고 진실하게 거기 애원했을 때에 돌이 아닌 까닭에 나도 거기 같이, 내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오며 마음을 전달함이 없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깃불을 켜는데 전력이 가는 사이 없이 전달해서 불이 켜지듯이 말입니다. 전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크면 큰 대로 끌어 쓰듯이, 적으면 작은 모터를 돌릴 때 작은 전력이 올 것이고 큰 모터를 돌릴 때는 큰 전력이 올 것입니다. 큰 모터만 해 봤다면 큰 전력이 올 것이고 작은 모터를 달아 봤기 때문에 더 큰 전력을 끌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작은 모터가 작은 모터대로의 전력을 쓰겠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해도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할 때 '스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잡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건 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 바로 자기가 되는 건데, 내가 무슨 신통력이 있소? (대중 웃음) 신통력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있

진실되게 행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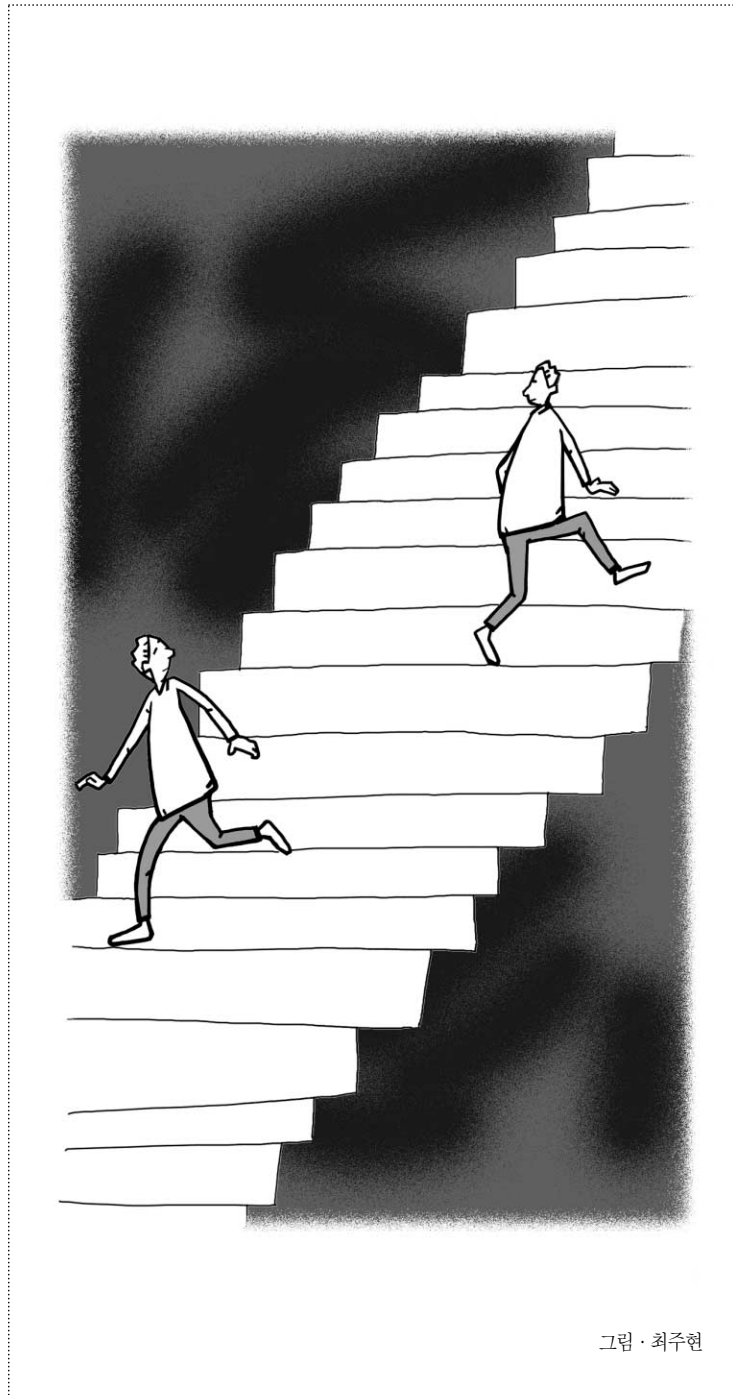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졌지. 그것을 바로 신통력을 당신네들이 생활에서 씬씀이를 가지라고, 글리라고, 바로 그것으로써 당당하게 일어나라고 반야심경에도 있듯이, 그 마지막 주문은, 여러분의 주문은 바로 자기 찾는 데의 주문이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바로 순간에 내가 자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뭘 돌이켜야 뭐 신통력을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는 거지, 자기가 그냥 하는데 무슨 신통력이 거기 없고 안 붙고 어디 있었습니까? 신통력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언어도 붙지 않고 가고 옴도 없고 전달함도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당당한 것은 바로 이 도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주인공만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이날까지 얘기를 했어도 그걸 못 알아듣나요? 나는 여러분의 집잡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러고도 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돌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나라는 거를 빼고 살라고 그렇게

지고 그 바다로 흐르는 물은 핏물 고름물 구정물 맑은 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다로 모여서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비가 올 때, 독사가 그 빗물을 먹으면 독사가 되는 것이고, 풀이 먹으면 풀이 되는 것이고, 또 초목들이 먹으면 초목인 것이 사람이 먹으면 사람인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빗물은 똑같지만 먹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그릇대로 먹어 주는데, 적서 주고 먹여 주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그 '신통력이 내게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나요? 저 태양이, 지금 내가 태양이 이렇게 신통력이 있다 이러던가요? 오히려 신통력이 있고 신통력이 없고 간에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은 신통력이 있다 없다 그런 언어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거니와 역대 조사들도 그렇고 나 역시 그렇다 이렇듯, 만약에 달마 대사가 사람들 사는 데에 큰 구렁이가 나와서 서리고 있으니 그걸 멀리 끌어다 놔야 되겠으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달마 대사가 구렁이가 됐던 겁니다. 잠시 잠깐 구렁이가 돼 가지곤 구렁이를 끌고 저 멀리 갔다가 던져 놓고선 다시 그 옷을 벗고 나와 가지곤 자기

었던 까닭에 나는 그냥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사람이거나 말없이 발로 퐁퐁 굴렀대요. 옛날에 이런 말까지 해 줘서 잘못될는지 또 모르죠. 여러분이 또 알지도 못하고 이론으로만 알아 가지곤 그냥...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 작은 데서부터 잘 여러분이 사는 데 생활 속에서 그 뜻을 알아보세요. 동쪽 서쪽이 돌입니까? 한국에 가니까 동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이쪽인데, 여기 미국에 와 보니까 동쪽이 또 어디니까? 하하하. (대중 웃음) 그러니까,

동쪽도 서쪽도 돌이 아니며
 여자 남자도 돌이 아니니라.
 높은 산 양은 산도 돌이 아니며
 봄 가을도 돌이 아니니라.
 모두가 돌이 아닌 까닭에 모두 같이
 근본은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도 마저 없느니라.

이 뜻을, 이 깊은 뜻을 잘 아시려면 그 작업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공, 허공과 같은 주인공의 그 그릇은 비어서 항상 날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다시 생선이 돼서 속속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그 작업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또 자가발전소도 되겠죠.

질문 또 하실 게 있습니까? 내가 너무 혼자만 말을 해 가지고, 왜 나만 말을 하게 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래, 여기 스님네들도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집잡이로서는 훌륭한 스님네들입니다. 거짓 되게 이론으로서 학습적으로서 사는 스님네들 백명을 갖다 놔도, 천 명을 갖다 놔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생활로서 따진다면 내 동생 같고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이렇게 아주 자비한 넓은 마음으로서 항상, 내 언니 같고 또 내 형 같고...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화복하겠습니까? 높이 올린다면 또 돌이 되고 거북하고 너무 내린다면 또 거북하고 또 안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진실하게 가아만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다음에 또 2월 그름거나 또 다시 3월달에나 오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날 때까지 여기서 이 스님네들의 인도를 받아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는 중천될 전력이, 광력이, 자력이 풍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0년 12월 9일 수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게 했지 않습니까? 공했다고, 내가 어떤 것 될 때, 여러분이 응할 때에, 여러분이 병이 낫다고 할 때에 "스님! 나는 지금 예가 이렇게 아픕니다." 할 때, 그러면 이것저것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분이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선사들이 '무!' 했던 겁니다. 너무 많이 잘나찰나 돌면서 그냥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해서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무!' 했던 거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손 하나 번쩍! 들었던 겁니다. 말없이 하나는 이렇게 했고(手印) 하나는 번쩍 들었어요. 자기 발로 그 땅을 디렸고 바로 자기 손으로 지붕을 받치고 손으로 이 세상을 굴렀다 이 소립니다. 그랬는데 말도 없었는데 무엇으로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고 또 스님도 신통력이 있고 그렇다고 누가 말을 했던가요?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이 우주천하를 그냥 한 숨에 요리를 해서 탕! 탕! 근기대로 먹어 주셨는데, 그릇대로 담아 줬단 말입니다.

내가 엇그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해서, 즉 말하자면 비가 오면 골짜기 물이 빠져 도랑물이 돼 가지고 바다로 흘러 가

고 그 바다로 흐르는 물은 핏물 고름물 구정물 맑은 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다로 모여서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비가 올 때, 독사가 그 빗물을 먹으면 독사가 되는 것이고, 풀이 먹으면 풀이 되는 것이고, 또 초목들이 먹으면 초목인 것이 사람이 먹으면 사람인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빗물은 똑같지만 먹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그릇대로 먹어 주는데, 적서 주고 먹여 주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그 '신통력이 내게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나요? 저 태양이, 지금 내가 태양이 이렇게 신통력이 있다 이러던가요? 오히려 신통력이 있고 신통력이 없고 간에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은 신통력이 있다 없다 그런 언어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거니와 역대 조사들도 그렇고 나 역시 그렇다 이렇듯, 만약에 달마 대사가 사람들 사는 데에 큰 구렁이가 나와서 서리고 있으니 그걸 멀리 끌어다 놔야 되겠으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달마 대사가 구렁이가 됐던 겁니다. 잠시 잠깐 구렁이가 돼 가지곤 구렁이를 끌고 저 멀리 갔다가 던져 놓고선 다시 그 옷을 벗고 나와 가지곤 자기

옷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자기 옷을 누가 입고 갔습니까? 입고 간 놈은 누구고 또 뺀 놈은 누구겠습니까? 고건 여러분의 공부를 시키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뭇! 즉 말하자면 옷을 벗고 입고 하는 나뭇을, 이게 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방편 쓴 거지, 달마 대사가 어디가 모자라서 옷을 뺐습니까? 허허허, 아이 구참 내,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도 달마 대사가 수천수만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로도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서 옷을 뺐습니까? 도둑놈이 자기 옷을 입고 갔대요. 그런데 도둑놈, 그 옷 입고 간 놈도 그 놈이고 또 그 옷을 입고 간 놈도 그 놈이지만 그 뺀 놈도 그 놈이죠. 달마 대사 예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썼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 온 까닭이 무엇이나?" 할 때 우리가 저 높은 계단을, 우리 지금 절이 계단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거 조금이라도 그러면 계단을 올라온 까닭이 뭐냐고 여러분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 계단에 올라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리대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내려가는 까닭과 올라오는 까닭이 돌이 아니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음향연구사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록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나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출장 녹음

지난 10년간 국내외의 5백여 사찰과 스님들의 독경과 법문을 제작하여 온 명실공히 전국 유일의 불음전문 녹음실 스님! 이제 녹음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아 먼길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게신 곳에서 완벽하게 무잡음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하여 마음에 쏙 들게 테이프나 시디(CD)로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리녹음실에서 녹음하신 스님과 단체

선행원 남산스님, 조계종 서안스님, 법연원 조연스님, 통도사 경안스님, 법화종 구암스님, 문화재 해강스님, 문화재 청공스님, 문화재 진하스님, 문화재 해월스님, 해각스님, 해관스님, 지암스님, 현암스님, 지관스님, 등관스님, 성문스님, 법진스님, 지우스님, 종곡스님, 구화산 인덕스님, 지용스님, 일출스님, 월곡스님, 상곡스님, 해성스님, 덕일스님, 호재스님, 현장녹음 : 불교방송, 일본장생탄광전도재, 티벳, 티벳 불교문화교류, 몽고한, 몽골문화교류, 민속문화대축전 등... 이화선사

佛音專門 **달리녹음실**
 0502-555-1040
 080-115-8008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심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심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원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간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심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경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심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함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심원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
- 어깨양팔꿈치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을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원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서화당인생풀이 V2.2 (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 할인후 : 총3장 220,000원

동양철학 : 사주팔자, 궁합, 명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공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건기능, 명명학, 풍수, 풍수기능까지 (그간 3,000여장 판매실적) *특허받은 「사주전환」, LG산전 「남품실적」

사상체질의학 : 나의 체질 진단, 약성정보, 사상의학 강의실, 체질별 건강정보 사상체질 진단 및 이론분석생활제공

인장성명학 : 사주풀이 및 이름사 뒤에 인, 장, 점 등 표기설명, 성명풀이(한글, 한자), 작명(영자, 들림자 풀이)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2045년까지 풀이됩니다.

■ 주문 선착순 100명에는 왕초보도 친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의학의 진수 "사상약방체대전 ₩88,000원"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 본 광고의 판매 수량 및 가격 유효기간은 500세트 한정 판매이며, **세트 판매 주문은 2006년 1월 20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증진대로 가격이 환원 됩니다.

입금처 : 우체국 313049-01-003391 (계금주 : 농협 453050-55-002174 (사)한국체질의학회연구재단)

특가행사 :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V2.0 ₩110,000
 ▶ CD 총3장 ₩440,000원을 특별할인(-50%) 판매가격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주문후 택배로 익일에 도착합니다)

(사)한국체질의학회연구재단 | 관주 : 한국동양철학연구원 중앙회관 최구봉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총연합회
 ☎ 050-2266-3366 / H · P 010-3366-3366